



<우적가(遇賊歌)>에 대하여

A Study on 「Woo-jock-ka」

저자
(Authors) 금기창

출처
(Source) [국어국문학 107](#), 1992.5, 47-72 (26 pages)
[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107](#), 1992.5, 47-72 (26 pages)

발행처
(Publisher) [국어국문학회](#)
The Society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074967>

APA Style 금기창 (1992). <우적가(遇賊歌)>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07, 47-72.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7/31 10:09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遇賊歌에 對하여

琴 基 昌*

目 次

- | | |
|---------------|-------------------|
| I. 緒 言 | III. 「遇賊歌」의 解讀·解釋 |
| II. 「遇賊歌」의 構造 | IV. 結 言 |

I. 緒 言

『三國遺事』에 傳하고 있는 鄉歌 「遇賊歌」는 小倉進平의 『鄉歌及び史讀の研究』란 著書 以來 여러 學者들에 依해 多角度로 解讀 解釋이 試圖되어 그동안 많은 業績들이 蓄積되어 있다. 이 鄉歌는 永才의 ‘生死一如’의 佛敎的 人生觀과 世界觀을 歌詞로 읊긴 노래이며, 現傳 25首의 鄉歌中 忠談의 「讚耆婆郎歌」와 더불어 가장 難解한 鄉歌로 손꼽히는 作品이기도 하다.

「遇賊歌」는 永才가 人間이 眞實한 生命에 開眼했을 때 나타나는 根源的 敎智에 到達한 것과 ‘空의 思想’에 基礎를 둔 深遠한 智慧를 下化衆生의 倫理的 實踐을 通하여 完成하는 기쁨을 소리 높여 謳歌한 노래라 하겠다.

「遇賊歌」는 闕字가 많은 것이 그 特色이며 歌詞 表記가 許多한 唯一例를 帶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四個의 闕字까지 지니고 있어서, 解讀 解析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또한 事實이라 하겠다.

『三國遺事』 卷五에 收錄되어 있는 「永才遇賊」에 있어서, 「永才遇

*대전대

賊歌」說話의 흐름과 그 說話의 中心部에 자리잡고 있는 「遇賊歌」歌詞와는 不可分의 關係에 있는 것으로 보아진다. 그러기에 일찌기 “永才의 「遇賊歌」에 對하여”에 있어서 筆者는「遇賊歌」說話를 分析考察하고 나아가 鄉歌의 解讀 解釋에 基礎가 될만한 ‘空의 思想’과 事物에 執着함이 없는 境地에 關한 記錄들을 論議한 바 있으므로 本稿에서는 再論하지 않겠다.

우리는 詞腦歌의 構成樣式으로 三句六名格 結構를 보게 되는데 嗟辭詞腦格 形態를 지닌 「遇賊歌」가 新羅社會의 作品인 限, 新羅時代의 樣式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遇賊歌」도 三句六名格 形式을 基調로 하여 거기에 살(肉)을 붙이고 옷을 입히어 아름답게 丹粧을 해 놓은 作品으로 보아진다.

筆者는 이와 같은 所見들을 根據로 하여 「遇賊歌」의 解讀을 試圖하는 同時에 그 作品속에 담겨 있는 文學的인 意味와 佛敎哲學的인 價値를 解明해 보려고 한다.

II. 「遇賊歌」의 構造

「遇賊歌」에는 深奧한 「空」의 理念이 담겨져 있을 뿐만아니라 闕字가 많아서 鄉歌中 가장 難解한 作品中的 하나이기도 하다. 「遇賊歌」의 全文을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自矣心米 兒史毛達只將來吞隱
日遠鳥逸□□過出知遺 今吞蔽未去遺省如
但非乎隱焉破□ 主次弗□史內於都還於尸朗也
此兵物叱沙過乎好尸 曰沙也內乎吞尼
阿耶 唯只伊吞音之叱根隱
溘陵安支 尙宅都乎隱以多

이 노래를 各行末의 語尾를 中心으로 하여 文法的 分析을 加한 結果를 두고 보면, 遇賊歌는 第四行·第六行·第十行의 末尾에 各各 終結語尾가 實現되어 있다. 따라서, 「遇賊歌」의 三句의 構造는 다음과 같다.

第一句 } 自矣心米 兒史毛達只將來吞隱
(初句) } 日遠鳥逸□□過出知遺 今吞蔽未去遺省如.

初二句 } 但非乎隱焉破□ 主次弗□史內於都還於尸朗也。
 (中句) } 此兵物叱沙過乎好尸 曰沙也內乎吞尼
 第三句 } 阿耶 唯只伊吾音之叱恨隱
 (終句) } 清陵安支 尙宅都乎隱以多.

上記의 三句의 構造에 있어 第一句(初句)의 構成을 보면, 第二行의 「將來吞隱」(을든)의 「든」은

ㄷ(不完全名詞)+은(對照補助詞/主題格補助詞)

그러므로 文脈이 「將來吞隱」에서 中斷된다. 따라서 初句는 複文이며 二個의 構成要素, 卽 二名으로 成立되어 있다.

中句에 있어서는 第六行 末尾에 終結語尾가 實現되어 있다. 第八行의 「吞尼」(더니)의 「니」는

더(回想法先語末語尾)+니(拘束法語尾)

에서 文脈的 意味로는 連結語尾와 같은 機能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第六行 末尾에 終止符(period)가, 第八行 末尾에 句讀點(comma)이 內包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卽 中句는 強意 強調하기 爲하여 글의 順序를 倒置하여 놓은 것으로 把握할 수가 있겠다.

終句(第三句)에 있어 「恨隱」(흔은)은

흔(名詞)+은(對照補助詞/主題格補助詞)

그러므로 文脈이 「恨隱」에서 中斷된다. 따라서, 筆者는 “唯只伊吾音之叱恨隱”으로써 第五名을 삼으려 한다. 그러므로 「遇賊歌」의 三句六名の 構造는 다음과 같다.

第一句 } 第一名…自矣心米 克史毛達只將來吞隱,
 (初句) } 第二名…日遠鳥逸□□過出知遊 今吞蔽未去遣省如,
 初二句 } 第三名…但非乎隱焉破□ 主次弗□史內於都還於尸朗也.
 (中句) } 第四名…此兵物叱沙過乎好尸 曰沙也內乎吞尼,

第三句 } 第五名…阿耶 唯只伊吾音之叱恨隱,
 (終句) } 第六名…潛陵安支 尙宅都乎隱以多.

이 노래의 三句六名의 構成을 보면, 여기서 얻어지는 事實은 初句와 終句는 基準形式에 文字 그대로 符合되는 整齊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中句에 있어서는 第六行 末尾에 感嘆法助詞가 第八行 末尾에 拘束法語尾가 實現되어 있어 變形된 形態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強意 強調하기 위하여 글귀를 倒置한 것으로서 基準形式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遇賊歌」가 整齊된 形態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嗟辭詞腦도 「遇賊歌」에 이르러서는 그 形式이 完成되어 盛期에 處해 있음을 알았고, 內容에 있어서도 上求菩提 下化衆生의 佛敎理念을 소리 높여 謳歌하고 있음을 볼 때, 嗟辭詞腦도 이미 壯年期에 다나르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다.

III. 「遇賊歌」의 解讀·解釋

이 「遇賊歌」에 對하여도 일찍부터 여러 學者들에 依하여 解讀·解釋이 試圖되어 왔는데 論者마다 意見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定說을 세우지 못한 채 行徨하고 있는 것이 學界의 實情이라 하겠다.

筆者는 이에 「遇賊歌」의 解讀·解釋에 關한 諸家의 異見들을 問題解決에의 길잡이로 삼으면서 「遇賊歌」의 解讀·解釋에 對한 鄙見을 披瀝해 보려고 한다.

第一名：自矣心米

兒史毛達只將來吞隱

「自矣」에 對하여는 「自」 義訓讀 「저」, 「矣」 音借 「에」 冠形格助詞. 따라서, 筆者에게 있어 「自矣」는 「저에」이라 읽고 「저의」를 뜻하는 語詞로 보려 한다.

「心米」에 있어 「心」은 訓讀 「마슴」, 「米」는 音借 「미」. 그러므로 「米」는 앞서는 「마슴」의 끝소리가 「口」임을 나타내는 末音添記와 處所格助詞 「의」를 兼한 것이다. 卽 「마스미」는

모숨(名詞)+이(處所格助詞)

그러므로 筆者에게 있어 「心米」에 對하여는 「모스미」이라 읽고 「마숨에」를 뜻하는 語詞로 보려 한다.

「心米」에 對하여는 處格形으로 보는 系列과 屬格形으로 보려는 두 系列이 있다. 前者의 系列에는 梁柱東·정렬모·徐在克이 있고, 後者の 系列에는 홍기문·金完鎭·金俊榮의 諸氏가 있는데, 筆者는 前者의 境遇를 擇하려 한다.

“兇史毛達只將來吞隱”에 있어 筆者는 “兇史 毛達只 將來吞隱”과 같이 分節하여 읽으려 한다.

「兇史」에 있어 「兇」은 訓讀 「죽」, 「史」는 略音借 「스」 「죽」의 末音添記. 따라서, 筆者에게 있어 「兇史」에 對하여는 「죽」이라 읽고 「모숨」을 뜻하는 語詞로 보려 한다.

「兇史」를 「죽」이라 읽는데에는 表記에 若干의 差異들이 있기는 하지만 別異論이 없을 것 같다.

「毛達只」에 對하여는 「毛」音借 「모」, 「達」音借 「돌」, 「只」略音借 「이」 副詞派生接尾辭. 그러므로 筆者에게 있어 「毛達只」에 對하여는 「모돌이」, 곧 「모다리」이라 읽고 「모르게」를 뜻하는 語詞로 보려 한다. 卽

몰을(動詞語幹)+이(副詞派生接尾辭)

「毛達只」이 梁柱東에게¹⁾ 있어서는 「只」를 虛字로 보고 「모돌이」요, 池憲英에게²⁾ 있어서는 「모닥」(못알아)이고, 홍기문은³⁾ 「隱」까지를 包含한 「毛達只將來吞隱」으로써 「모돌기려든」(모르던), 정렬모는⁴⁾ 「모돌기」(달치 못하게), 徐在克은⁵⁾ 「모즈락」(부족하게), 金俊榮은⁶⁾ 다음의 「將」까지를 包含한 「모돌기아」로써 「모르고」로 나와 있다.

1) 梁柱東: 『古歌研究』(1975), p. 641.

2) 池憲英: 『鄉歌麗謠新釋』(1948), p. 25.

3) 홍기문: 『향가해석』(1956), p. 306.

4) 정렬모: 『향가연구』(1965), p. 329~330.

5) 徐在克: 『新羅鄉歌의 語彙 研究』(1979), p. 49.

6) 金俊榮: 『鄉歌文學』(1983), p. 170.

이에 對해 金完鎭은⁷⁾ 傳承 過程에서 草體의 「見」字를 「只」字로 誤讀한 結果로 보고 「모돌보」로 臨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解讀들은 筆者에게 있어 首肯되지 않는다.

· 「將來吞隱」에 있어 「將來」에 對하여는 「彗星歌」에 보면

月置八切爾數於將來尸波衣……(彗星歌)

에서 「將來尸」은 「을」, 「尸」는 音借 「르」 「을」의 末音添記. 그러므로 「將來」는 「을」의 表記임을 알 수가 있겠다.

「吞隱」에 있어 「吞」은 音借 「든」, 「隱」은 略音借 「ㄴ」 「든」의 末音添記. 따라서, 「吞隱」에 對하여는 「든」이라 읽는다. 그러므로 筆者에게 있어 「將來吞隱」에 對하여는 「을든」이라 읽고 「오기는」을 뜻하는 語詞로 보려 한다. 卽

오(動詞語幹)+을(推定/未定冠形法語尾)+든(不完全名詞)+오(對照補助詞/主體格補助詞)

그런데 金完鎭을 除外한 모든 解讀者들이 第二行 末尾에 「日」字까지를 붙여 끊어 읽어 ‘~던 날’로 解讀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解讀은 ‘든=ㄷ+은’에 있어서의 「은」의 主題의 性格을 勘案한다면 成立될 수 없는 表記일 것이다.

金完鎭은 「將來」가 「러」의 表記임을 發見한 것은 梁柱東의 큰 功勞라고 激讚하고, 「將來吞隱」에 있어 앞의 只까지를 包含한 「只將來吞隱」에 對하여 「보려든」이라 읽고 있는데 筆者에게는 首肯이 가지 않는다.

筆者는 지금까지 試圖한 「遇賊歌」 第一名의 解讀·解釋의 結果를 綜合하여 다음과 같이 提示한다.

解 讀

저에 모스미

쫓 모드러 을든

7) 金完鎭 : 『鄉歌解讀法 研究』(1982), p. 146.

解 釋

지의 마음에
모습을 모르게 오기는

第二名：日遠鳥逸□□過出知遣
今吞蔽未去遣省如

‘日遠鳥逸□□過出知遣’에 있어 筆者는 ‘日遠 鳥逸 □□ 過出 知遣’와 같이 分節하여 읽으려 한다.

筆者는 「日遠」 두 字를 訓讀하여 「히 멀」이라 읽고 「해가 멀」 「해가 저물」을 뜻하는 語詞로 보려 한다. 「鳥逸」에 있어서도 두 字를 모두 訓讀하여 「새 수물」이라 읽고 「새가 숨을」을 뜻하는 語詞로 보려 한다.

그런데 여기서 「히 멀」의 「멀」과 「새 수물」의 수물은 같이 冠形格이라 볼 수가 있겠다. 卽

멀 = 멀(冠形詞語幹) + 을(冠形法語尾(推定, 未定))

수물 = 수물(動詞語幹) + 을(冠形法語尾(推定, 未定))

그러므로 「히 멀」(日 遠)과 「새 수물」(鳥逸)은 □□을 修飾하는 冠形詞句로 보아 진다. ‘해가 저물’고 ‘새가 숨을’ 때는 ‘저녁 나절’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缺字部位는 ‘저녁 해’ 또는 ‘저녁 나절’을 뜻하는 語詞 「夕陽」(나절히)으로 보아진다. 따라서, 缺字部位를 「夕陽」으로 補完하면, “日遠鳥逸夕陽過出知遣”가 된다. ‘日遠鳥逸’은 暮景을 描寫한 句節이며 「夕陽」은 詩話中の ‘才年僅九十矣’와 相照應和하는 語句가 되겠다. 그런데 池憲英은 缺字의 두 자리를 「川理」의 脫落으로 보고 「川理」에 對하여 「나리」이라 읽고 慶州의 ‘北川’을 가르키는 語詞로 보려 하고 있다. 이에 對하여 金完鎭은 缺字 두 자리를 「月矣」 또는 「月衣」로 채우고 「드라리」라 읽으려 하고 있으며, 金善琪는 缺字部位를 「西山」으로 메우려 하고 있다. 그러나 그와같은 解讀들은 筆者에게 있어 首肯이 가지 않는다.

「過出知遣」에 있어 「過」는 訓讀 「디나」, 「出」은 訓讀 「나」 「디나」의 末音添記. 「知」는 訓讀 「알」, 「遣」은 音借 「고」. 그러므로 筆者에게 있어 「過出知遣」에 對하여는 「디나 알고」이라 읽는다.

「過出知遺」에 對하여 梁柱東·홍기문에게 있어서는 「디나치고」이요, 池憲英에게 있어서는 「디나 알고」이고, 정렬모에게서는 「디나 티고」, 金完鎭은 「난 알고」, 徐在克은 「디나티건」, 金俊榮은 「디나디고」로 나와 있다. 이 句節에 關한 限 筆者는 「디나 알고」이라 읽은 池憲英의 풀이와 그 軌를 같이 하려 한다.

筆者는 ‘今呑蔽未去遺省如’에 있어 ‘今呑 蔽未 去遺 省如’와 같이 分節하여 읽으려 한다.

「今呑」에 있어 「今」은 訓讀 古訓 「연」,

今……연 금 [訓蒙字會下·二]

「呑」은 音借 「돈」, 그러므로 筆者에게 있어 「今呑」에 對하여는 「연돈」 곧 「여돈」이라 읽고 「지금은」을 뜻하는 語詞로 보려 한다. 卽

연(名詞)+은(對照補助詞/主題格補助詞)

「今呑」은 「여돈」으로 익는 데에는 表記에 若干의 差異들이 있기는 하지만 別異論이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정렬모는 「연돈」이라 읽고 「얼마 남지 아니 한」을 뜻하는 語詞로 풀이 하고 있고, 池憲英에게 있어서는 「궂돈」이라 읽고 「南岳」을 뜻하는 語詞로 보려 하고 있다.

「蔽未」에 있어 「蔽」은 義訓讀 「듬」, 「未」는 音借 「미」. 그러므로 「蔽未」에 對하여는 「듬미」 곧 「드미」이라 읽는다. 그런데 「드미」는 「듬미」로 볼 수가 있겠다. 卽

듬(名詞)+미(處格助詞)

그러므로 筆者에게 있어 「蔽未」에 對하여는 「드미」이라 읽고 「두메」를 뜻하는 語詞로 보려 한다.

「蔽未」에 對하여는 小倉進平의 「숨에」(叢에)를 비롯하여 梁柱東의 「슈메」(숨으러), 홍기문의 「수미」(숨으러), 池憲英의 「드메」(듬풀에, 산골에), 정렬모의 「수미」(목숨이), 徐在克의 「드미」(두메), 金完鎭의 「수풀」(수풀), 金俊榮의 「슈메」(隱居하러) 등 多樣한 解讀

이 이어져 나와 있다. 筆者는 解讀에 있어서는 徐在克과 그 軌를 같이 하는 바이나, 그러나 解釋에 있어서는 「두메에」를 뜻하는 語詞로 보려 한다.

「去遣省如」에 있어 「去」는 訓讀 「가」, 「遣」는 略音借 「고」, 「省」은 轉音略借 「쇼」, 「如」는 義訓借 「다」. 그러므로 筆者에게 있어 「去遣省如」에 對하여는 「가고쇼다」이라 읽고 「가고 있도다」를 뜻하는 語句로 보려 한다. 卽

가(動詞語幹)+고(羅列法語尾)+이시(助動詞語幹)+오(意圖法先語末語尾)+다(敘述法終結語尾)

「去遣省如」에 對하여 小倉進平에게 있어서는 「가고쇼다」(지나가고 있었다)이요, 梁柱東에게 있어서는 「가고쇼다」(가고 있노라), 池憲英은 「가고쇼다」(가고 있도다), 金完鎭은 「가고성다」(가고 있습니다), 徐在克은 「가겨심다」(가오이다), 金俊榮은 「가고쇼다」(가노라)로 풀이 한데 對해, 洪기문은 「가고소다」(가나이다), 정렬모는 「가겨셔너」(부지하고 있네)로 臨하고 있다. 이 句節에 關한 限, 筆者는 池憲英의 解讀·解釋을 最上의 成果로 삼으려 한다.

筆者는 지금까지 試圖한 「遇賊歌」 第二名의 解讀·解釋의 結果를 綜合하여 다음과 같이 提示한다.

解 讀

히 멀 새 수물 나죄히(夕陽) 디나 알고
여돈 드미 가고쇼다

解 釋

해가 멀고 새가 숨을 저녁 나절이 지나서 알고
지금은 두메에 가고 있도다

第三名：但非乎隱焉破□

主次弗□史內於都還於尸朗也

筆者는 「但非乎隱焉破□」에 있어 「但 非乎隱焉 破□」과 같이 分節하여 읽으려 한다.

「但」에 對하여 諸橋轍次著 『大漢和辭典』 「但」字條에 보면

但：およそ. すべて
[正韻] 但, 凡也.

라고 나와 있다. 그러므로 筆者에게 있어 「但」에 對하여는 義訓讀 「무릇」이라 읽고, 「一切의」를 뜻하는 語詞로 보려 한다.

「但」이 梁柱東·金俊榮에게 있어서는 「오직」이라 풀이되고 있고, 徐在克·金完鎭에게서는 「다만」, 홍기문은 「오직」로 나와 있다.

「非乎隱焉」에 있어 「非」는 音讀 「비」, 「乎」는 省音借 「오」, 「隱」은 略音借 「ㄴ」, 따라서 「非乎隱」은 「비온」이라 읽는다. 그런데 「焉」은 略音借 「ㄴ」 「비온」의 末音添記. 그러므로 筆者에게 있어 「非乎隱焉」에 對하여는 「비온」이라 읽고, 「빛 내는」을 뜻하는 語詞로 보려 한다. 卽

비오(動詞語幹)+오(冠形法語尾)

「非乎隱焉」에 對한 解讀 「외온」은 梁柱東⁸⁾에 비롯된다. 그 後 정렬모는⁹⁾ 앞의 「但」까지를 包含한 「둔비오논」으로써 「덤비는」, 홍기문의¹⁰⁾ 「외흔」(옳지 않은), 徐在克¹¹⁾ 「외온」(그릇된), 金完鎭의¹²⁾ 「외오논」(잘못된 것은), 金俊榮의¹³⁾ 「외오 숨언」(그르게 隱居하는)으로 이어져 나와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解讀들은 노래 가운데의 主人公을 破戒主 또는 破家主로 보고, 그것을 合理化하려는 非論理的 解讀의 結果로 보아진다. 그러므로 筆者에게는 敍上의 解讀들은 따를 것이 못된다고 생각된다.

「破□」에 對하여 筆者는 缺字의 한 자리를 「闇」字로 메워 「破闇」이라 읽고, 「無明의 破」를 뜻하는 語詞로 보려 한다. 「無明을 破」한다고 하는 것은 삶(生) 가운데의 이것 저것의 無知가 없어서서 하나 하나의 正確한 知識을 모두 얻(得)는다는 것이 아니라, 生 그 自

8) 梁柱東：『古歌研究』(1975), p. 652.

9) 정렬모：『항가연구』(1965), 사회과학원 출판사, p. 333.

10) 홍기문：『항가해석』(1956), 사회과학원 출판사, p. 311.

11) 徐在克：『新羅鄉歌의 語彙 研究』(1979), p. 49.

12) 金完鎭：『鄉歌解讀法研究』(1982), p. 148.

13) 金俊榮：『鄉歌文學』(1983), p. 171~172.

體의 成立基盤에 도사리고 있는 ‘無明이 破’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文字 그대로 ‘一切의 無明을 破’한다고 말하게 되는 것이다. 이 「破闇」이라고 하는 것은 “一切의 疑惑이 消滅해서 마치 太陽이 虛空을 비치는 것과 같이 安立하고 있다”¹⁴⁾라고 말한 지 Gautama Buddha의 法의 原體驗에 곧 바로 通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다.

破[因]에 對한 缺字 補入은 池憲英에 依한 것인데 池氏는 ‘但非乎 隱焉破[因]’와 같이 끊어 읽어 ‘隱焉破[因]’에 對하여 ‘은은바위’이라 읽고 ‘구름에 가리워진 재(嶺)’를 뜻하는 語詞로 보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藏菴의 姿意規定이 아닐 수 없다.

破[國]에 對한 缺字 補入은 梁柱東·徐在克·金俊榮·정렬모·홍기문 等 諸氏에 依한 것이오, 破[家]主에 對한 缺字 補完은 金完鎭에 依한 것이다. 그러나 詩話中の 永才의 人品에 關한 句節 ‘不累於物’과 ‘臨刃無懼也 怡然當之’ 등으로 미루어 보아 永才는 心無罣礙한 求道者로 보아진다. 그러므로 筆者는 永才가 ‘破戒主’나 ‘破家主’였을 可能性은 極히 稀薄한 것으로 본다.

筆者는 ‘主次弗[口]史內於都還於尸朗也’에 對하여 ‘主次 弗 [口]史 內 於 都 還於尸 朗也’와 같이 分節하여 읽으려 한다.

「主次」에 있어 「主」는 訓讀 「님」,

主 님…………[訓蒙字會中·一]

「次」에 對하여는 諸橋轍次著 『大漢和辭典』 「次」字條 「やどり」項에

師陳焚次…………[左氏·襄·二十六]

[注] 次, 舍也.

그러므로 「次」는 訓讀 「집」이라 읽는다. 따라서 筆者에게 있어 「主次」에 對하여는 「님 집」이라 읽고 「부처님 집」 곧 「涅槃」을 뜻하는 語詞로 보려 한다.

「弗」에 對하여는 訓讀 「버릴」이라 읽고 「버릴」을 뜻하는 語詞로 臨하러 한다. 卽

14) 兒玉曉洋: 『念佛の思想』(1987), p. 189.

번리(動詞語幹)+을(推定 冠形法語尾)

「主次弗」에 있어서는 池憲英을 除外한 모든 解讀者들이 「主」字에서 떼어 「次弗」로 읽고 있다. 그리하여 「次弗」이 梁柱東에게 있어서는 「저블」(두려워할)이요, 정렬모에게 있어서는 「저블」(흥한)이고, 홍기문에게서는 「저흠」(무서운), 徐在克은 「치블」(치량한), 金完鎭은 「머블」(머물게), 金俊榮은 缺字 한 자리를 ㄹ로 메우고 「次弗ㄹ史」로써 「자블이」(가진 것, 所有物), 池憲英은 「主」字까지를 包含한 「主次弗」로써 「숫블」(大峴嶺)로 나와 있다.

「主次弗」에 對한 이들의 解讀은 모두 解讀의 正道에서 크게 벗어난 것으로서 筆者에게는 首肯이 가지 않는다.

「ㄹ史」에 對하여는 缺字의 한 자리를 筆者는 「兪」字로 메워 「兪史」이라 읽는다. 「兪史」에 있어 「兪」은 訓讀 「줏」, 「史」는 轉音借 「식/세」 處格助詞. 그러므로 筆者에게 있어 「兪史」에 對하여는 「줏세」 곧 「즈세」이라 읽고 「짓에」를 뜻하는 語詞로 보려 한다. 卽

줏(名詞)+에(處格助詞)

「ㄹ史」가 梁柱東·홍기문에게 있어서는 「兪史」(즈세)이요, 정렬모에게서는 「貌史」(즈시)이고, 池憲英은 「至史」(이룣), 金俊榮은 「伊史」(이사), 徐在克은 「有史」(잇), 金完鎭은 「乎史」(오시)로 나와 있다. 이들의 解讀中 缺字 한 자리를 「兪」字로 메우고 「兪史」에 對하여 「즈세」이라 읽는 梁柱東·홍기문의 解讀을 筆者는 最大의 成果로 삼으려 한다.

「內於」에 있어 「內」는 音借 「늑」, 「於」에 對하여는 諸橋轍次著 『大漢和辭典』 「於」字條에 보면 ああ項에 歎息のごゑ. 烏に同じ라고 하고 있다.

「烏」는 오/우 또는 으(아)로 읽을 수 있다. 그러므로 「於」는 音借 「어」 外에 오/우 또는 으(아)로도 읽을 수가 있겠다.

또

늑 여러 疑惑 없스니(無復諸疑惑)……[法華經卷一·二四八]

늑희 잇는 거시 없스리니(更無所有)……[楞嚴經卷一·八六]

에서 筆者는 「於」를 轉音借 「외」로 읽으려 한다. 그러므로 筆者에

게 있어 「內於」에 對하여는 「내외」이라 읽고, 「다시」(復·更)를 뜻하는 語詞로 보려 한다.

「內於」에 對하여 梁柱東에게 있어서는 「내외」이라 읽고, 「다시」를 뜻하는 語詞로 보고 있고, 金完鎭에게 있어서는 「내놀」이라 읽고 「하신들」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池憲英은 「國史內於」로 앞의 缺字까지를 包含한 「니스누어」(이르러서), 徐在克은 「有史內於都」와 같이 끊어 읽어 「잇노오도」(있어도)로 나와 있다. 이에 對해 흥기문은 다음에 오는 「都」를 「도」로 看做하고 「內於都」에 對하여 「내외도」이라 읽고 「다시금」을 뜻하는 語句로 보려 하고 있고, 정렬모 또한 「都」字를 「도음도」로 보아 「내여도」라 읽고 「하여도」를 뜻하는 語句로 보려 하고 있다. 筆者는 이들의 解讀中 梁柱東의 「내외」만이 正鶴을 얻은 풀이로 評價하려 한다.

「都」에 있어 「都」音借 「도」副詞. 따라서 筆者에게 있어 「都」에 對하여는 「도」라 읽고 「또」를 뜻하는 語詞로 보려 한다. 「都」에 있어서는 梁柱東만이 「도」로써 「또」를 뜻하는 한 마디 말로 보고 있다.

「還於尸」에 對하여는 「還」은 訓讀 「돌」, 「於」는 音借 「으」, 「尸」略音借 「근」, 그러므로 筆者는 「還於尸」에 對하여 「돌을」 곧 「도롤」이라 읽고 「돌아올」을 뜻하는 語詞로 보려 한다. 卽

돌(動詞語幹)+올(未定 冠形法語尾)

「還於尸」에 있어서는 文字 그대로 十人 十色의 多樣한 解讀들이 보인다. 「還於尸」이 梁柱東에게 있어서는 「於」(어)가 「돌」의 長音を 나타낸 것으로 보고 「돌」(돌친)이요, 池憲英에게 있어서는 「돌얼」(돌아올)이고, 흥기문에게서는 「돌롤」(돌칠. 돌을), 정렬모는 「도롤」(도리혀), 金俊榮은 「도르혈」로써 「들려 쥐야할」, 徐在克은 「朗也」까지를 包含한 「돌올랑야」(돌일까 보냐), 金完鎭은 앞의 「都」와 다음 「朗也」까지를 包含한 「도도랄랑여」로써 「놀라겠읍니까」와 같은 狀況이다. 이 句節에 關한 限, 筆者는 池憲英의 「돌얼」(돌아올)이 가장 正鶴에 가까운 解讀으로 評價하려 한다.

「朗也」에 對하여는 諸橋徹次著 『大漢和辭典』 「朗」字條 ほからか項에 보면

其望能光遠宣朗…………〔國語, 楚語下〕

〔注〕朗, 明也

高朗令終……〔詩 大雅 既醉〕

〔傳〕朗, 明也.

따라서, 「朗」은 訓讀 「불췌」, 「也」는 倣借 「여」. 그러므로 「朗也」에 對하여는 「불췌여」이라 읽고, 「快活한 事여」를 뜻하는 語詞로 보려 한다. 卽

불(動詞語幹)+ 음(名詞形語尾)+이여(感嘆法助詞)

「朗也」가 梁柱東에게 있어서는 「려」(오리)이요, 정렬모에게 있어서는 「원이라」(환하다)이고, 홍기문에게서는 「라야」(러라)로 나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解讀은 筆者에게 있어 가장 따르기 어려운 풀이로 보아 진다.

第三名은 缺字의 介在 때문이기도 하지만 解讀上의 昏迷가 極甚했던 대목의 하나라 하겠다. 文脈의 把握이 서로 엇갈려 같은 次元에서 論議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參考로 諸氏의 解讀例을 들어 보면

梁柱東 : 오직 외은 破戒主

저플 즈세 누외 또 들려

池憲英 : 단비오 온은 바위

主次弗 니스누이 도 돌일 스르여

홍기문 : 오직 외은 破戒主

저플 즈세 누외도 도틀라야

정렬모 : 단비오는 破戒主

저플 즈시 내여도 도틀 원이라

金善琪 : 단비고 숨안 바계두

자블이 사나오도 돌을 사나히라

徐在克 : 다민 외은 破戒主

치블 [잇]누오도 돌을랑야

金俊榮 : 오직 외오 숨언 破戒主

자블이사 너어도 도르힐 朗여

金完鎭 : 다민 외오는 破家너림

머플오시누늘 도도랄랑여

와 같다. 上記의 解讀例에서 共通된 解讀은 「還」字에 對한 「들」과

「破戒主」程度이고, 餘他の 部分에 對해서는 果然 이것이 같은 句節에 對한 解讀인가를 疑心하게할 程度이다.

筆者는 遇賊歌詞 第三名의 解讀·解釋의 結果를 綜合하여 다음과 같이 提示한다.

解 讀

무릇 비온 破[㉠]

님 집 버릴 즈세 님의 도 도를 불곰여

解 釋

一切의 빗내는 ‘無明의 破’

부처님 집(涅槃) 버릴 짓에 다시 또 돌아올 快活함이며

第四名: 此兵物叱沙過乎好尸

曰沙也內乎吞尼

“此兵物叱沙過乎好尸”에 있어 筆者는 “此 兵物叱 沙過乎好尸”과 같이 分節하여 읽으려 한다.

「此」는 訓讀 「이」 冠形詞. 「兵物叱」에 있어 「兵」字에 對하여는 諸橋轡次著 「大漢和辭典」 「寇」字條 あだ項에 보면

左右有言秦寇之至者……〔呂覽 壅塞〕

〔注〕寇, 兵也

라고 하고 또

도죽구(寇)……〔類合下 10〕

따라서, 「兵」에 對하여는 義訓讀 「도죽」이라 읽고, 「도독」을 뜻하는 語詞로 보려 한다.

「物」字條 たゞ項에 보면

是其生也 與吾同物……〔左 氏, 桓, 六〕

〔注〕物, 類也

따라서, 「物」에 對하여는 義訓讀 「무리」, 「叱」略音借 「入」 冠形格助詞. 그러므로 筆者에게 있어 「兵物叱」에 對하여는 「도죽 무리入」 곧 「도죽무리」이라 읽고 「도죽의 무리」를 뜻하는 語詞로 보려

한다. 「兵物叱」에 대하여 池憲英만이 「衆生」으로 풀이하고 있고, 다른 분들은 모두 凶器로 받아 들고 있다. 그리하여 「兵物叱」에 있어 다음 「沙」字까지를 包含한 「兵物叱沙」이 梁柱東에게¹⁵⁾ 있어서는 「잠골사」(갈(刀)이야)이요, 홍기문에게¹⁶⁾ 있어서는 「잠개르사」(무기야)이고, 金俊榮에게서는¹⁷⁾ 「잠갯사」(凶器로써), 徐在克은¹⁸⁾ 「잠개사」로써 「날연장」, 金完鎭은¹⁹⁾ 「자본가사」(兵器를)로 나와 있다. 한편 「兵物叱」에 대하여는 池憲英에게 있어 「돌들스」(衆生들)이요, 정렬모는²⁰⁾ 「보를」(흉기)로 보려 하고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解讀들에 대하여는 筆者에게 있어 首肯이 가지 않는다.

「沙過乎好尸」에 있어 「沙」는 音借 「사」, 「過」는 音借 「고」, 「乎」는 「紫布岩乎邊希」에서의 岩乎(바회)의 「乎」(회)字와 같은 轉音借 「회」에서 ㅎ音이 脫落해서 이루어진 「외」로 보려 한다. 「好」는 音借 「호」, 「尸」는 略音借 「근」, 그러므로 筆者에게 있어 「沙過乎好尸」에 대하여는 「사+고+외+호+근」 곧 「사괴홀」이라 읽고, 「~로 하여금 사이 좋게 지낼 것을」을 뜻하는 語句로 把握하려 한다. 卽

사괴(動詞語幹) + 호(使役派生先語末語尾) + 울(未定法動名詞語尾)
+ 울(目的格助詞)

‘此兵物叱沙過乎’에 있어 梁柱東·홍기문·金俊榮·金善琪·徐在克에게 있어서는 ‘此 兵物叱沙 過乎’와 같이 分節하여 「過乎」이 梁柱東·金俊榮에게서는 「다내온」이요, 홍기문은 「디나호」이고, 金善琪는 「디나고」, 徐在克은 「글은」으로 나와 있다. 한편 金完鎭은 「過」字의 草體가 「過」字로 誤讀하기 쉽게 되어 있다는 點을 들어 「過乎」가 아닌 「遇乎」로써 「말오」를 나타냈던 것으로 보려 하고 있다.

池憲英은 ‘此 兵物叱 沙過乎好尸’과 같이 끊어 읽어 「沙過乎好尸」

15) 梁柱東 : 『古歌研究』(1975), p. 658.

16) 홍기문 : 『향가해석』(1956), p. 313.

17) 金俊榮 : 『鄉歌文學』(1983), p. 173.

18) 徐在克 : 『新羅鄉歌의 語彙 研究』(1979), p. 49.

19) 金完鎭 : 『鄉歌解讀法研究』(1982), p. 152.

20) 정렬모 : 『향가연구』(1965), p. 335.

에 대하여 「사괴홀」이라 읽은 데에 대하여는 讚同하지만, 이에 對한 그의 理解 ‘사괴인 것을’(相交한 것을)에 對하여는 筆者에게 있어 首肯이 가지 않는다.

정렬모에게 있어서는 「沙過乎」와 같이 分節하여 「새나오」(시들하게)로 보려 하고 있다.

이 대목에 와서는 이것이 果然 같은 文面에 對한 解讀인가를 疑心하게 한다. 「曰沙也」에 있어 「曰」은 訓讀(マㄹ), 「沙」는 音借「사」, 「也」는 音借「여」. 그러므로 筆者에게 있어 「曰沙也」에 對하여는 「마ㄹ사여」이라 읽고 「말씀하게 하여」를 뜻하는 語詞로 보려 한다. 卽

マㄹ사(가로의 높임말)+이(使役派生接尾辭)+어(連結法語尾)

梁柱東·金俊榮·홍기문·정렬모는 「曰」字에서 끊어 「好尸曰」에 있어 「曰」字를 「日」字의 轉訛로 보고 「好尸日」에 對하여 梁柱東·金俊榮에게 있어서는 「도홀 날」(좋은 날)이오, 홍기문에게 있어서는 「도홀 날」(좋은 날)이오, 정렬모에게서는 「홀 날」로써 「할 날」로 나와 있다.

한편 徐在克·金完鎭은 「好尸 曰沙」와 같이 分節하여 金完鎭에게서는 「曰」字를 「法」字의 轉訛로 보고, 「好尸 法沙」에 對하여 「즐길 法이사」이라 읽고, 「즐길 法을랑」을 뜻하는 語詞로 보려 하고 있고, 徐在克에게서는 「도홀 마ㄹ사」이라 읽고 「좋은 이야기야」를 뜻하는 語詞로 보려 하고 있다.

우리 學界의 風土는 아직도 假說이란 이름 아래 想像次元의 論壇이 거침없이 行하여지고 있는데 이는 學問 以前의 問題이니 彼此에 警省할 일이다.

「內乎呑尼」에 對하여는 「內」音借「나」, 「乎」省音借「오」, 「呑」音借「단」 또는 「던」, 「尼」音借「니」. 그러므로 「內乎呑尼」에 對하여 「나오다니」 또는 「나오더니」이라 읽을 수가 있겠다. 그런데 「內乎呑尼」의 主語가 一人稱인 때에는 「呑尼」에 對하여 「다니」이라 읽지만 二三人稱인 境遇에는 「더니」라 읽는다. 그러므로 筆者에게 있어 「內乎呑尼」에 對하여는 「나오던니」 곧 「나오더니」라 읽고 「나오더니」를 뜻하는 語詞로 보려 한다. 卽

나오(動詞語幹)+더(回想法先語末語尾)+니(拘束法語尾)

앞의 ‘沙’까지를 包含한 「沙也內乎呑尼」에 對하여 梁柱東은 「새누오싸니」라 읽고 「새리러니」 곧 ‘고대 새리라 너져 깃버했더니’를 뜻하는 語句로 보려 하고 있고, 金俊榮에게서는 「사여누오드니」라 읽고 「사여」를 ‘曠’의 뜻으로 보아 ‘날이 트이어 올까보냐’를 뜻하는 語句로 보려 하고 있다.

한편 洪기문에게서는 「물여누호다니」라 읽고 「물리더니」를 뜻하는 語句로 臨하려 하고 있고, 정렬모는 「새와 내오드니」로써 「새삼스리 내오다니」로 나와 있다.

金完鎭·徐在克은 「也內乎呑尼」와 같이 끊어 읽어, 「也內乎呑尼」에 있어 金完鎭에게서는 「也」를 「聞」의 轉訛로 보고 「聞內乎呑尼」에 對하여 「듣노오다니」라 읽고 「듣고 있는데」를 뜻하는 語句로 보고 있고, 徐在克에게서는 「也」를 中世語 「이어다. 이아다」(攪·搖)와 語源을 같이 하는 말로 보고 「이아누온드니」로써 「이아칠 거냐」로 나와 있다.

池憲英에게서는 「曰沙也內乎呑尼」와 같이 끊어 읽어 「曰沙也內乎呑尼」에 對하여 「뉛(니사여)누오다니」라 읽고 「말하다니」를 뜻하는 語句로 臨하려 하고 있다.

第四名도 解讀上의 昏迷가 極甚했던 대목의 하나다. 文脈의 把握이 서로 엇갈려 같은 次元에서 論議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기는 하나 參考로 諸家의 解讀例를 들어 보면

- 梁柱東: 이 잠꼴사 디내온 도홀날 새누오싸니
- 池憲英: 이 돌들스 사괴홀 니사여누오다니
- 洪기문: 이 잠개르사 디나호 도홀 날 물여누호다니
- 정렬모: 이 보물 새나오 홀 날 새와 내오드니
- 金善琪: 이 잠갈사 디나고 긴갈 날 사야나온다니
- 徐在克: 이 잠개사 글은 도홀 마롭사 이아누온드니
- 金俊榮: 이 잠갯사 디내온 도홀 날 사여누오드니
- 金完鎭: 이 자븐가사사 말오 즐길 法이사 듣노오다니

와 같다. 共通된 것이라고는 「此」字에 對한 「이」程度이고 나머지 部分에서는 果然 이것이 같은 文面에 對한 解讀인가를 疑心하게 한다.

前者는 「遇賊歌」第四名에 對한 解讀·解釋의 結果를 綜合하여 다음과 같이 提示한다.

解 讀

이 도죽 무릇 사괴홀
가라사여 나오더니

解 釋

이 도적의 무리로 하여금 사이 좋게 지낼 것을
말씀하게 하여 나오더니

第五名：阿耶 唯只伊吾音之叱恨隱

「唯只伊吾音之叱恨隱」에 있어 筆者는 ‘唯只 伊吾 音之叱 恨隱’과
같이 分節하여 읽으려 한다.

「唯只」에 대하여 「唯」는 訓讀 古訓 「오지」, 「只」는 通音略借 「기」
強勞添尾素. 그러므로 筆者에게 있어 「唯只」에 대하여는 「오직」이라
읽는다.

「唯只」에 대하여 梁柱東·홍기문은 「오지」로 臨하고 있고, 金完鎭
·徐在克·金俊榮의 諸氏는 「오직」으로 읽고 있다. 池憲榮·정렬모는
다음의 「伊」까지를 包含한 「唯只伊」로써 池憲英에게서는 「어제」이
요, 정렬모는 「오지기」로 나와 있다. 그러므로 「唯只」에 關한 限 筆
者는 上記의 金·徐·金(俊)의 諸氏와 意見을 같이 하려 한다.

「伊吾」에 있어 「伊」는 音借 「이」 冠形詞, 「吾」는 訓讀 「내」 一人
稱 代名詞 「나」의 冠形格. 그러므로 筆者에게 있어 「伊吾」에 대하여
는 「이내」라 읽는다.

여러 解讀者 가운데 「伊吾」에 대하여 「이내」라 읽은 분은 金俊榮
단 한분 뿐이다. 梁柱東·徐在克은 「伊吾」 다음의 「叱」까지를 包含
한 「伊吾音之叱」이 梁柱東에게 있어서는 이오맛(요맛)이요, 徐在克
에게서는 「이노밋(이놈의)이고, 홍기문·金完鎭은 第五名 末尾의
「隱」까지를 包含한 「伊吾音之叱恨隱」에 대하여 홍기문은 「이 오름
깃흔(이 오름직한), 金完鎭은 「더오 밋흔(조만한)으로 나와 있다.
이 文面에 對한 諸家의 解讀은 昏迷가 極甚하여 같은 次元에서 論
議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音之叱」에 있어 「音」은 訓讀 「소리」, 「之」는 義訓讀 「의」, 「叱」
은 略音借 「入」 冠形格助詞 그러므로 筆者에게 있어 「音之叱」에 對
하여는 「소리잇」이라 읽고, 「소리에 의」를 뜻하는 語詞로 보려 한
다. 卽

소리(名詞)+익(處格助詞)+入(冠形格助詞)

「音之叱」이 池憲英에게 있어서는 「소릿」이요, 金俊榮에게 있어서는 「소릿」으로 나와 있다. 그러나 이곳은 마땅히 「소리잇」이라 읽고 「소리에의」를 뜻하는 語詞로 풀이하어야 한다고 筆者는 생각한다.

「恨隱」에 있어 「恨」은 音讀 「흔」, 「隱」은 音借 「은」. 그러므로 筆者에게 있어 「恨隱」에 對하여는 「흔은」이라 읽는다. 卽

흔(名詞)+은(對照補助詞/主題格補助詞)

「恨隱」에 對하여 池憲英에게 있어서는 「흔논」(하는)으로 풀이되고 있고, 徐在克에게서는 「恨은」으로 解讀하고 있으며, 金俊榮은 「흔」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들의 解讀中 徐在克의 「恨은」을 筆者는 最上의 成果로 삼으려 한다.

第五名에 對한 解讀 또한 昏迷가 極甚했던 대목의 하나라 하겠다. 筆者는 第五名에 對한 解讀 解釋의 結果를 綜合하여 다음과 같이 提示한다.

解 讀

아아, 오직 이내 소리잇 흔은

解 釋

아아! 오직 이내 소리에의恨은

第六名：潛陵隱安支尙宅都乎隱以多

‘潛陵隱安支尙宅都乎隱以多’에 있어 筆者는 ‘潛陵隱 安支 尙宅 都乎隱以多’와 같이 分節하여 읽으려 한다.

「潛陵隱」에 있어 「潛」은 轉音借 「스」, 「陵」은 轉音借 「르」, 「隱」은 略音借 「니」. 그러므로 筆者에게 있어 「潛陵隱」에 對하여는 「스르니」이라 읽고 「正覺한」 또는 「깨달은」을 뜻하는 語詞로 보려 한다. 卽

스르(動詞語幹)+은(冠形法語尾)

「潛」을 「善」의 戲書로 보고 「潛陵隱」에 對하여 「좋은」으로 처음 解讀한 이는 梁柱東이었다.²¹⁾ 그 後 金完鎭에게²²⁾ 있어서는 「潛」을 「清」의 誤字로 보고 「清陵隱」에 對하여 「물론」이라 풀이하고 있고, 金善琪·金俊榮에게서는 「이든」, 徐在克은 「서른」으로 나와 있다. 池憲英은²³⁾ 普賢十願歌에 세번 나오는 「善陵」을 「正覺」을 뜻하는 名詞로 보고, 「潛陵隱」에 對하여는 動詞 「스르다」의 「動詞語幹+ㄴ」인 動詞의 連體形으로 보려 하고 있다. 홍기문은²⁴⁾ 「潛陵隱」에 있어 「선릉은」이라 읽고 「선(善) 두듬은」을 뜻 하는 語詞로 보고 있고, 정렬모는²⁵⁾ 「서른」이라 읽고 「섭다」의 連體形으로 보고 있다.

「潛陵隱」에 있어 池憲英이 動詞 「스르다」의 「動詞語幹+ㄴ」으로 본 것은 表現上 若干의 問題가 있기는 하나 正鶴을 얻은 解讀으로 筆者는 評價한다.

「安支」에 있어 「安」은 訓讀 「괴외」, 「支」는 略音借 「이」 「괴외」의 末音添記. 그러므로 筆者에게 있어 「安支」에 對하여는 「괴외」이라 읽고 「寂靜」을 뜻하는 語詞로 보려 한다.

「安支」에 對하여 梁柱東에게 있어서는 「안디」 곧 否定副詞 「아니」의 古形으로 보고 있고, 池憲英에게 있어서는 「안」 또는 「도르」으로 풀이 하고 있으며, 徐在克에게서는 「안히」(마음이) 金完鎭은 「안죽」(아직), 金俊榮은 「安중」(安)으로 나와 있다.

이에 對해 홍기문은 「안디」이라 읽고, 「아니」를 뜻하는 語詞로 보고 있고, 정렬모는 「안기」라 읽고 「맘」을 뜻하는 語詞로 보려 하고 있다.

「尙宅」에 있어 筆者는 두 字를 모두 訓讀하여 「노별+집」 곧 「노필 집」이라 읽는다. 卽

뇨(形容詞語幹)+이(使役派生接尾辭)+을(冠形法語尾)

그런데 「尙」에 對하여는 諸橋徹次著 「尙」字條 「たつとぶ」項에 보면

- 21) 梁柱東: 『古歌研究』(1975), p. 668.
 22) 金完鎭: 『鄉歌解讀法研究』(1982), p.153~154.
 23) 池憲英: 『東邦學志』第十二輯(1971), p. 158.
 24) 홍기문: 『향가해석』(1956), p. 317.
 25) 정렬모: 『향가연구』(1965), p. 337.

尙：又尊也……〔字彙〕

로 나와 있다. 그러므로 「尙宅」은 「尊宅」으로도 볼 수가 있겠다. 그런데 「願往生歌」의 第三名 “誓音深史隱尊衣希”에 있어 「尊」은 「부처님」을 뜻하는 字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尊宅」은 「부처님宅」 「부처님 집」을 뜻하는 語詞로 보아진다. 그러므로 筆者에게 있어 「尙宅」에 對하여는 「노필 집」이라 읽고 「부처님宅」 또는 「부처님 집」을 뜻하는 語詞로 보려 한다. 「부처님 집」은 곧 「涅槃」을 뜻한다. 「尙宅」에 對하여 「노필 집」이라 읽을 境遇, 第三名の 「님 집」(主次)과 對句를 이루어 노래는 한 層躍動하고 빛나게 된다.

「尙宅」이 小倉進平에게 있어서는 「높죽」(높이)이요, 梁柱東에게 있어서는 「새집」이고, 池憲英에게서는 「수극」(淸淨無垢), 徐在克은 「안죽」(아직), 金俊榮은 「尙宅」, 金完鎭은 「떡도」(떡도)로 나와 있다. 이에 對해 흥기문은 「상택」이라 읽고 「큰 집」을 뜻하는 語詞로 보고 있고, 정렬모는 「터택」이라 읽고 「도둑」이란 말을 뽕조로 이른 말로 보고 있다.

「都乎隱以多」에 있어 「都」는 訓讀 「모도」, 「乎」는 省音借 「오」 「모도」의 末音添記, 「隱」은 略音借 「ㄴ」, 「以」音借 「이」, 「多」音借 「다」. 그러므로 筆者에게 있어 「都乎隱以多」에 對하여는 「모도니다」이라 읽고 「모은 것입니다」를 뜻하는 語詞로 풀이 하려 한다. 卽

모도(動詞語幹) + 오(意圖法先語末語尾) + 으니(確定法先語末語尾)
+ 다(敘述法終結語尾)
여기서 語尾 「다」는 「라」로 發音한다.

「都乎隱以多」에 對하여는 文字 그대로 十人十色의 解讀들이어서, 小倉進平의²⁶⁾ 「두오니다」(두있는가), 梁柱東의²⁷⁾ 「도외니다」(안되니다), 池憲英의 「도은이다」(하오이다), 金俊榮의 「도은이다」(뉘니다), 徐在克의 「모도니다」(全部인 게다), 金完鎭의 「업스니다」(없읍니다), 정렬모의²⁸⁾ 「되외니다」(된 것이다), 흥기문의 「드외이다」(아

26) 小倉進平：『郷歌及び吏讀の研究』(1929), p. 235.

27) 梁柱東：『古歌研究』(1975), p. 671~672.

28) 정렬모：『향가연구』(1965), p. 338~339.

니외다)와 같은 狀況이다.

이들의 解讀中 徐在克의 「모도니다」는 正鶴을 얻은 풀이로 보아 진다. 그러나, 「모도」에 對한 그의 理解, 卽 「모도」를 動詞 「모도다」(모오다)의 語幹 「모도」로 보지 않고 「全部」를 뜻하는 語詞로 보려는 것은 筆者에게는 首肯이 가지 않는다.

筆者는 「遇賊歌」 第六名에 對하여 試圖한 解讀·解釋의 結果를 綜合하여 다음과 같이 提示한다.

解 讀

스런 괴외 노필 집 모도니다

解 釋

正覺한 寂靜 부처님 宅(涅槃)을 모은 것입니다.

‘涅槃’이 우리들에 그 ‘形式’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成道(正覺)는 우리들에 ‘佛敎의 精神’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다. 涅槃·寂靜은 佛敎의 理想世界를 말한다. 諸行無常과 諸法無我が 宇宙語法의 現象을 如實하게 判斷한 것임에 對해, 이 涅槃·寂靜은 宇宙萬物의 根本當體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기에 涅槃·寂靜은 三法印의 맨 끝에 걸려 있는 것이다.

Gautama Siddhaltha는 ‘完全히 寂靜한 境地’를 얻어서 佛陀(Buddha)가 되어 釋迦牟尼佛(Shakyamuni Buddha)이라고 불리게 된 것이다.

筆者는 지금까지 「遇賊歌」에 對하여 試圖한 解讀의 結果를 綜合하여 다음과 같이 提示한다.

解 讀

저에 딴스미
 죽 모도리 올든,
 히 벌 새 수물 나죄희(夕陽) 디나 알고
 여든 드미 가고쇼다.
 무릇 비온 破箇
 님 집 브릴 즈세 너의 도 도를 불곰여.
 이 도죽무릿 사괴홀
 가라사여 나오더니,

아야, 오직 아내 소리잇 혼은,
스른 피의 노필 집 모도니다.

「遇賊歌」의 解讀에 對하여 筆者의 意見에 따라 第一名에서 第六名까지 解釋해 본 結果를 綜合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解 釋

저의 마음에
모습을 모르게 오기는,
해가 밀고 새가 숨을 저녁나절이 지나서 알고
지금은 두매에 가고 있도다.
一切의 빛내는 ‘無明의 破’
부처님 집(涅槃) 버릴 것에 다시 또 돌아올 快活함이며.
이 도둑의 무리로 하여금 사이 좋게 지낼 것을
말씀하게 하여 나오더니,
아야! 오직 이 내 소리에의 恨은,
正覺한 寂靜 부처님 宅(涅槃)을 모은 것입니다.

IV. 結 言

이제 本 論文은 그 스스로의 結論으로 進入할 수밖에 없겠다. 그러므로 筆者는 지금까지 「遇賊歌」에 對하여 論議한 筆者의 見解를 다시 要約하여 整理해 보기로 한다.

1. 「遇賊歌」의 構造는 三句六名으로 結構된 型式을 갖추고 있다.
2. 第一名에 있어 筆者는 「毛達只」에 對하여 「모다리」라 읽고, 「모르게」를 뜻하는 語詞로 보았으며, 卽

몰올(動詞語幹)+이(副詞派生接尾辭)

「將來吞臆」은 「올도」이라 읽고 「오기는」을 뜻하는 語句로 把握하였다. 卽

오(動詞語幹)+올(推定/未定冠形法語尾)+ㄷ(不完全名詞)+은(對照補助詞/主題格補助詞)

3. 第二名에 있어 筆者는 缺字의 두 자리를 夕陽(나죄히)으로 메우고 「日遠鳥逸」(히 멀 새 수 뜰)을 「夕陽」을 修飾하는 冠形詞句로 보았으며, 「過出知遣」에 對하여는 「디나 알고」로써 臨하였다.

4. 「蔽末」에 對하여는 「드미」라 읽고, 「두베에」를 뜻하는 語詞로 풀이하었으며 卽

듬(名詞)+익(處所格助詞)

「去遣省如」는 「가고쇼다」라 읽고, 「가고 있도다」를 뜻하는 語句로 把握하였다. 卽

가(動詞語幹)+고(羅列法語尾)+이시(助動詞語幹)+오(意圖法先語末語尾)+다(敘述法終結語尾)

5. 第三名에 있어 「非乎隱焉」에 對하여는 「비 은」이라 읽고, 「빛 내는」을 뜻하는 語句로 把握하였으며; 卽

비오(動詞語幹)+은(冠形法語尾)

「破□」에 있어서는 缺字의 한 자리를 「閣」字로 메우고 「破閣」에 對하여 「無明의 破」를 뜻하는 語詞로 筆者는 보았다.

6. 筆者에게 있어 「主次」에 對하여는 「님 집」(부처님 집), 「弗」은 「넉릴」이라 解讀하고, 「□史」에 있어서는 缺字의 한 자리를 「兪」字로 메우고 「兪史」에 對하여 「즈세」라 읽고 「짓에」를 뜻하는 語詞로 보았다. 則

죇(名詞)+에(處所格助詞)

7. 「內於」에 對하여는 「넉외」(다시)로 臨하고, 「還於尸」에 있어서는 「도롤」이랄 읽고 「돌아올」을 뜻하는 語詞로 把握하였으며, 卽.

돌(動詞語幹)+올(未定冠形法語尾)

「朗也」는 「불뚝여」이라 읽고 「快活함이여」를 뜻하는 語詞로 보았

다. 卽

뉘(動詞語幹)+으(名詞形語尾)+이어(感嘆法助詞)

8. 第四名에 있어 「兵物叱」에 對하여는 「도죽 무럿」(도적의 무리)로 풀이하고, 「沙過乎好尸」에 있어서는 「사괴흠」이라 읽고 ‘~로 하여금 사이 좋게 지낼 것일’을 뜻하는 語句로 把握하였다. 卽

사괴(動詞語幹)+호(使役派生先語末語尾)+으(未定法動名詞語尾)+으(目的格助詞)

9. 「曰沙也」에 있어 筆者는 「마르사여」라 읽고 「말씀하게 하여」를 뜻하는 語詞로 보았으며, 卽

마르사(가로의 높임말)+이(使役派生接尾辭)+어(連結法語尾)

「內乎呑尼」에 對하여는 「나오더니」로 把握하였다. 卽

나오(動詞語幹)+더(回想法先語末語尾)+니(拘束法語尾)

10. 第五名에 있어 「音之叱」에 對하여는 「소리앗」이라 읽고 「소리에의」를 뜻하는 語詞로 보았다. 卽

소리(名詞)+이(處所格助詞)+아(冠形格助詞)

11. 第六名에 있어 筆者는 「潛陵隱」에 對하여 「스른」(正覺한. 깨달은), 「安支」은 「괴외」(寂靜), 「尙宅」은 「노필집」(부처님 宅. 涅槃)으로 把握하였으며, 「都乎隱以多」에 對하여는 「모도니다」라 읽고 「모은 것입니다」를 뜻하는 語句로 把握하였다. 卽

모도(動詞語幹)+오(意圖法先語末語尾)+으니(確定法先語末語尾)+다(敘述法終結語尾)

여기서 語尾 「다」는 「라」로 發音한다.